

2022년 4월호 (2022.4.20.)

코로나가 남긴 숫자...제대로 읽기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우리나라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2022년 4월 1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27개 나라에서 484,647,972명, 사망자는 6,170,0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대유행) 상황인지, 엔데믹(풍토병)의 치명률인지 판단은 모두 통계 숫자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의 반발로 WHO가 사망자 숫자를 1500만명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계 숫자는 많은 오류 포함하고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유네스코는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의 부가가치 생산 손실액이 7,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에 잡힌 우리나라 2021년 문화콘텐츠산업체의 매출과 수출액은 증가치를 보여줍니다. 뮤지컬 등 일부 장르가 이끈 공연시장의 반등세, NFT의 인기와 온라인 경매로 인한 미술시장의 활황 등, 그나마 숫자로 파악되는 몇몇 문화예술산업의 통계는 예술생태계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오도할 위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쪼그라든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장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의 영역에도 들어오지 않는 창작주체들까지 포함해서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오해되지 않게 본질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 차]

1. 팬데믹 or 엔데믹?
2. 여전히 성장세인 경제지표...
3. 공평하지 않은 코로나 타격!
4. 비관적 전망에 비해 늘어난 문화산업 매출 실적??
5. Post-코로나 시대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과 숫자가 만드는 오해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국가 간 거시지표 비교와 문화관련 통계 사이트들

1. 팬데믹 or 엔데믹? 📌 **확진 484,647,972명, 사망률 1.27% : WHO (2022.4.18 기준)**

정부가 4월 18일부로 2년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습니다. 같은 날 브라질도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방역조치를 완화한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다시 관광객이 북적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4.18일 현재 한국 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나라도 영국, 스위스를 비롯하여 총 24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¹⁾ 방역기조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국내외 여행 예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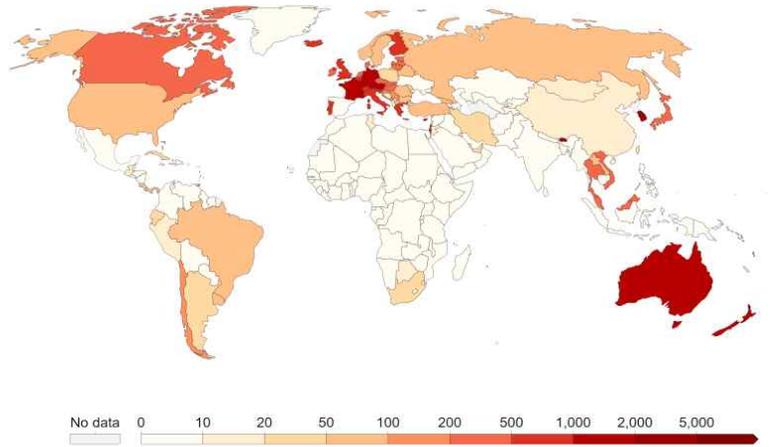
반면, 여전히 “Zero-코로나” 기조를 고수하며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은 개인의 몫이라고 발표한 미국에서도 다시 코로나 확산 조짐이 보여서 방역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발병 양상과 방역 기조가 달라지는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2022년 4월 18일 현재 발표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27개 나라에서 484,647,972명입니다. 그런데 WHO가 코로나 사망자가 기존에 발표된 600만 여명 보다 훨씬 많은 1천500만명이라고 발표하려고 하자 인도가 반발하여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대유행(팬데믹)이 정점을 찍었는지, 풍토병 수준으로 견디며 살아가기(엔데믹)에 적절한 치명률인지 판단은 모두 통계 숫자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의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언급될 숫자들의 이면에 가려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라별 코로나 신규 확진 현황 (2022.4.17 현재, 10만명 당 7일 평균)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per million people, Apr 17, 2022
7-day rolling average. Due to limited testing,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lower than the true number of infections.



Source: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

CC BY

<출처 :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	
세계	484,647,972	6,170,083	1.27	<데이터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 2022.4.18. 기준> WHO "전계 코로나 사망자 1천500만"...인도 항의 탕 발표 지연 (한국경제, 2022.04.18.) 브라질, 2년 만에 코로나19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선언 (KBS 뉴스, 2022.04.18.) 호주, 21일부터 해외 관광객 입국 허용... 2년 만에 국경 개방 (BBC News 코리아, 2022.02.21.)
한국	16,353,495	21,224	0.13	코로나 확진 9만3001명 진정세 지속...18일 거리두기 전면 해제 (동아사이언스, 2022.04.17.) 韓 신규확진 '압도적 1위'...전세계 확진 27% 한국서 쏟아졌다 (중앙일보, 2022.03.14.)
미국	79,716,960	979,321	1.23	미국의 코로나19 자신감..."마스크, 백신 등 방역은 개인 판단" (경향신문, 2022.04.18.) 美 필라델피아,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실내 마스크' (연합뉴스, 2022.04.12.)
중국	185,035	4,638	2.51	상하이, 아파트 11개동 격리시설 징발... 일부 부유층은 '특혜 탈출' (동아일보, 2022.04.18.) 식량 약탈에 폭력 사태까지...중국 '제로 코로나' 실태 (SBS 뉴스, 2022.04.16.)
홍콩	1,196,284	9,069	0.76	홍콩, 2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신규 확진자 1300명 아래로 (이투데이, 2022.04.14.)
대만	34,507	854	2.47	'위드코로나' 계획 짜는 대만 "이르면 하반기 해외여행 개방" (중앙일보, 2022.02.24.)
일본	7,180,734	28,825	0.40	"코로나 안정세에 日황금연휴 국내여행 68% 증가 예상" (연합뉴스, 2022.04.18.) 코로나 '비상조치' 푼 지 한 달 안됐는데... 日 '7번째 확산' 우려 (중앙일보, 2022.04.10.)
영국	21,715,120	171,046	0.79	[다시 일상으로] 런던엔 관광객 복적, 파리 미술관도 '프리패스' (매일경제, 2022.04.17.) 英, 완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격리·검사 등 모든 방역 규정 폐지" (한국일보, 2022.02.22.)
독일	23,182,447	132,688	0.57	5월 독일서 유럽 최대 K팝 축제...코로나 제한 해제 (JTBC뉴스, 2022.04.12.) 독일 코로나19 확산속도 최고치 경신...20일부터 규제완화 (연합뉴스, 2022.03.14.)

2. 여전히 성장세인 경제지표... 📌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4.4% : IMF (2022.1월 예측)**

2020년까지 코로나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하락과 실질부문의 축소 등 경제손실을 전망하는 예측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CNBC는 코로나 발생 후 2020.5.22.까지 전 세계에서 1억4700만 명의 실직과 3조8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국제공동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보도했습니다(무역뉴스, 2020.7.15.)²⁾. 같은 해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조8천억 달러(약 7천130조원)에서 8조8천억 달러(약 1경818조원)에 달하는 연간 경제손실 규모 예측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 세계 GDP의 6.4~9.7%에 해당하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스스로 발표했던 규모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것(연합뉴스, 2020.5.15³⁾)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이 연간 경제 피해 67.2조, 청년·자영업자 등 일자리 67만8000개 감소 등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20.8.25⁴⁾).

하지만, 2021년부터 급속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경제통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IMF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021년과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년 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 1월에 다소 축소 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는 4.4% 수준의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11가지 경제적 변화 분석”에서도 2021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DPI)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1조7000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무역뉴스, 2021.10.15.)⁵⁾고 합니다.

2022년 3월 독일의 IW 켈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19개국 중에서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경제성적을 달성했다고도 합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하락(-0.5%) 했고, 실질가계소득도 증가(2.2%)(매일경제, 2022.03.04.)⁶⁾ 했답니다. 이를 증명하듯, 자동차업계는 코로나 기간 동안 1187만대를 덜 팔고도 부가가치 높은 고급차 판매량이 증가하여 2021년 영업실적이 오히려 엄청나게 늘었다고 발표합니다.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를 논의한 우리나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정부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도 2021년 연말까지 취업자 수가 10개월 째 증가하여 코로나 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인다고 합니다.⁷⁾ 현실과는 동떨어진 숫자들을 보며 어리둥절해집니다.

경제적 손실 추정에서는 국민들의 실직, 사망 등에 따른 손실액을 추산하는 반면, GDP와 이를 반영한 경제성장률은 실제 생산으로 유발된 부가가치의 합계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쓸 육개장이나 화환의 판매량이 늘어도, 코로나 백신이나 마스크 생산이 늘어도 GDP는 증가하고,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손실은 있어도 국가 경제는 성장합니다.**

비관적이었던 2020년 경제손실 추정	vs.	반등한 2021~22년 세계경제 성장률	vs.	늘어난 2021년 영업실적
<p>아시아개발은행(ADB) : 2020년 예상 손실규모 5조8천억~ 8조8천억 달러 (약 1경818조원, 전세계 GDP의 6.4~9.7%)</p> <p>현대경제연구원 : 2020년 국내 연간 경제피해 67.2조원 예상</p>		<p>IMF (2022.1월) : 4.4% 예측 (한국은 3.0%)⁸⁾</p> <p>World Bank (2022.1월) : 4.1% 예측⁹⁾</p> <p>OECD (2021.12월) : 4.5% 예측</p> <p>*실적 : 2019년 2.6% / 2020년 -3.4% / 2021년 5.5%</p>		<p>‘돈 버락’ 맞은 자동차 업계...덜 팔았는데 더 벌었다 (한겨레신문, 2022.4.6.)¹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주요 완성차 그룹 실적 분석 . 1187만대 덜 팔고 78.7조원 더 벌어 . 부가가치 높은 고급차 판매량도 증가 

실적 통계로 보면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

한국, 코로나19 경제성적 승자...OECD 19개국 중 3위 (매일경제, 2022.03.04.)¹¹⁾

- . 2022.3월에 독일 경제연구소(IW 쾰른) 발표
- . 코로나19 이전 대비 2년 간 19개 OECD 회원국의 경제성적
- . 한국이 덴마크와 스웨덴에 이어 OECD 19개국 중 3위
- . 실업률은 위기 이전보다 하락 (-0.5%)
- . 실질가계소득은 위기 이전보다 증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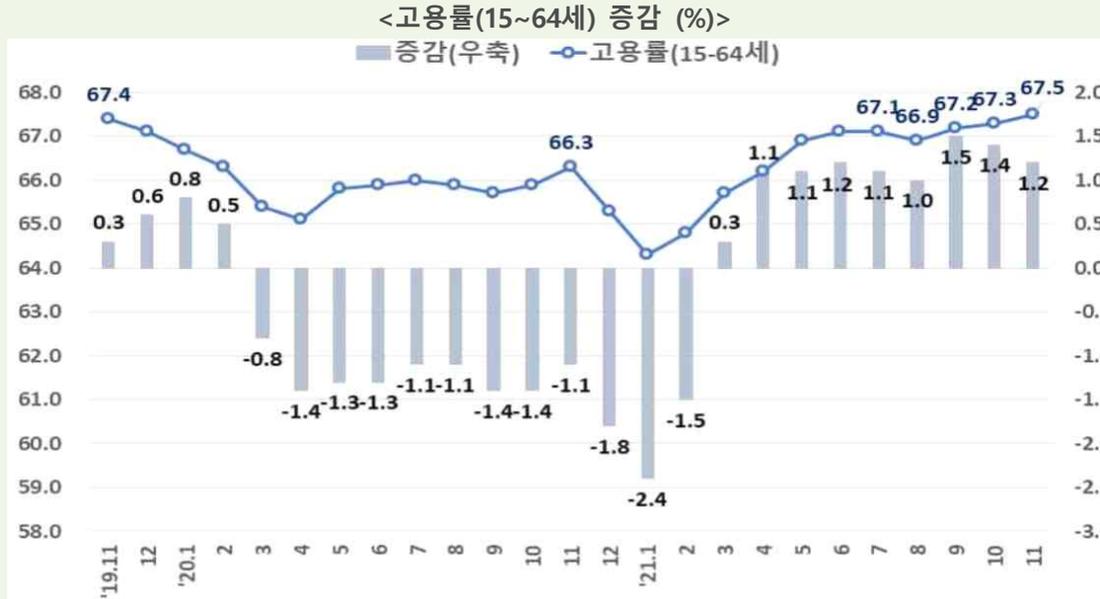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경제에 나타난 11가지 변화 (무역뉴스, 2021.10.15.)¹²⁾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11가지 경제적 변화 분석

- ②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 ⑤인플레이션 속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 : 임금분포 최하위 4분위군의 명목임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7% 증가...
- ⑥코로나19 이전보다 가처분소득(DPI)이 가파르게 증가 : 코로나19 이전 대비 1조7000억 달러 확대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비상경제중양대책본부 정부 관계부처 합동 회의자료, 2021.12.30.)¹³⁾

- . 2021년 연말까지 10개월 간 취업자 수가 10개월 째 증가하여 코로나 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세



3. 공평하지 않은 코로나 타격 ! 📉 2년간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증식 1791조원 (2배 이상 증가) : 옥스팜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코로나의 충격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취약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전현배 교수의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산업별 부가가치는 ‘음식점 및 숙박업(18.3%)’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18.4%)’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통신·방송·음향기기 제조업(14.7%)’이나 ‘금융 및 보험업(8.7%)’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경향신문, 2022.2.10.14). 국회예산정책처의 정기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장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적 충격은 완화되었으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 역할로 인한 유동성 증가,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증시 호황, 가상화폐 열풍,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며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이정은 외, 2021¹⁵)

국가 간에도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서비스 수혜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처럼,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저개발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에 러시아의 전쟁까지 겹쳐서 극한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평등의 팬데믹
...지구촌 소득·소비 양극화 심화
(매일경제, 2022.1.22.)¹⁶

국제구호기금 옥스팜
“세계10대 부자의 재산이 지난 2년 사이에
7천억달러(836조원)에서
1조5천억달러(1천791조원)로
2배 넘게 불어나”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세계 500대 부자의 순자산은 지난해
1조달러(1천194조원)가 늘어”



코로나19는 빈국의 질병이 돼 버릴까?
(BBC뉴스 코리아, 2022.3.30.)¹⁷

2022년 3월 20일 기준으로 아프리카 내 백신
접종 완료 인구는 15%밖에 되지 않아



코로나 2년차...국민 60% 혼자 여가 보낸다
골프장 이용률만 상승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조선일보, 2022.03.24¹⁸.)

2021년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레저시설 이용률은
43.5%로 2년 전(73.4%)보다 29.9% 감소
골프장 이용률만 2년 전인 2019년보다 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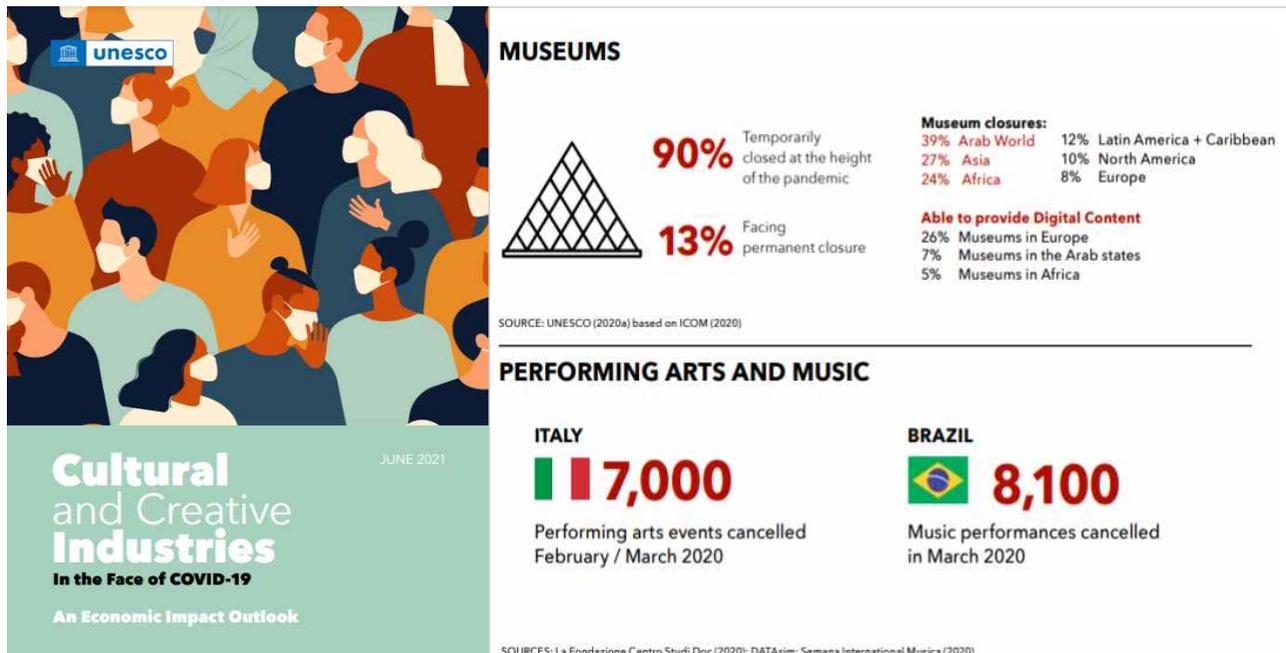
관광의 섬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
값을 돈 8조원, 가진 건 2조원 (조선일보, 2022.4.12¹⁹)



4. 비관적 전망에 비해 늘어난 문화산업 매출 실적?? **2020년 전세계 문화.창조산업 손실 추정액 7500억달러 : 유네스코**

문화예술분야는 대표적으로 코로나의 타격에 취약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부(코로나로 총 88조원 피해 추산)²⁰, 유네스코(2020년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분야 총 부가가치 생산액 7,500억달러 감소)²¹, 미국연방예술기금(NEA)(2020년 문화예술분야 총 생산이 6.4% 감쇠)²²에서 각각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영향만 집계하는 경제손실 통계로는 실제로 코로나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손실을 모두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유네스코의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 계측이 어려웠던 것처럼,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소득 축소와 시민들의 문화활동 축소로 인한 손실을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늘 그랬었지만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로 잡힌(!) 숫자는 코로나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예술가들의 비명 소리와는 대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통계에 잡힌 숫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증가, 뮤지컬 등 일부 장르가 이끈 공연시장의 반등, NFT의 문지마 인기와 온라인 경매로 인한 미술시장의 활황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문화예술분야의 숫자로 현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지 의문이듭니다. 뿐만 아니라 트로트 열풍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 40~60대 공연 관객의 증가에 비해 전통적으로 문화시장의 핵심 구매자였던 10~20대 관객의 감소를 좀 더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속된, 온라인으로의 문화 이동현상은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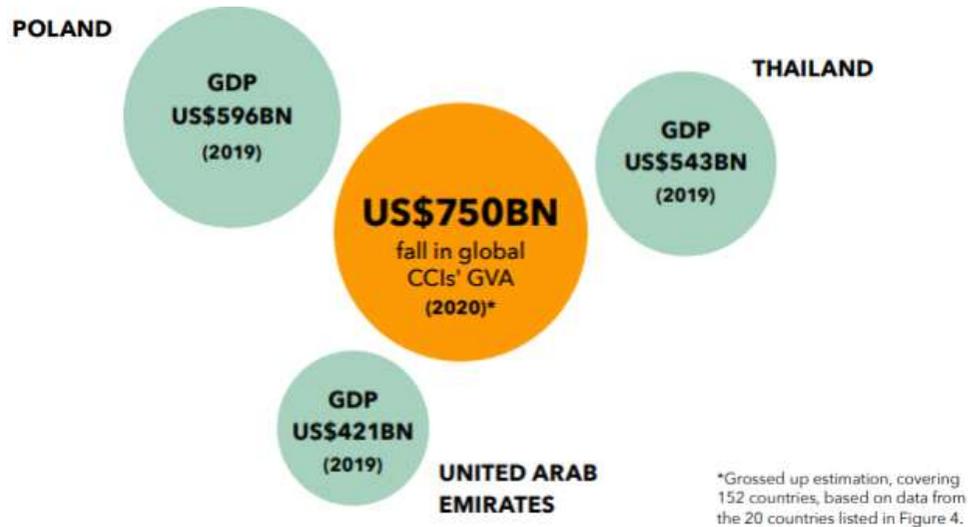
문체부 "코로나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분야 88조 피해 추산" (연합뉴스, 2021.10.1.)

- . 2021년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
- . 2019년 대비, 코로나 후 2021년 상반기까지
- .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액 감소 : 39.3조원 (2020년 26.9조원, 2021년 상반기 12.4조원)
- . 콘텐츠 분야 피해 : 2.9조원 (2020년 1.7조원, 2021년 상반기 1.2조원(영화 2.4조원, 대중음악공연은 0.5조원, PC방 피해 등 제외)
- . 문화예술 분야 피해 : 1.2조원 (2020년 0.8조원, 2021년 0.4조원 : 예술분야 0.6조,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0.4조, 사업체 종사자 고용피해 0.1조)

<출처 : 코로나 상황에서의 문화.창조산업(CCI) 실태분석보고서 (유네스코, 2021.6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CCI)의 총부가가치 생산 손실 추정
(유네스코, 20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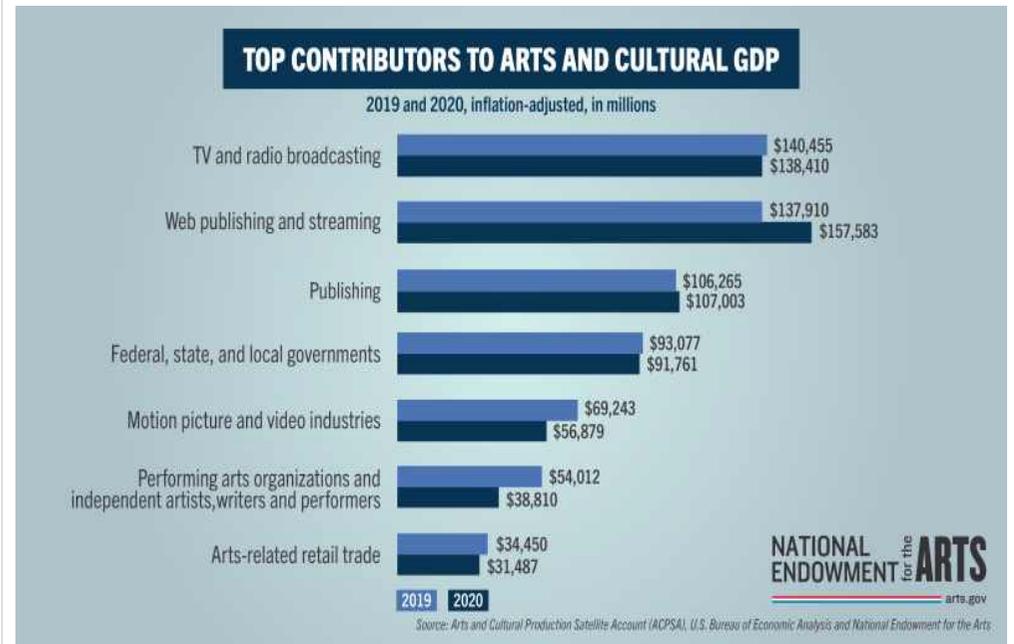
- . 전 세계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추정한 결과, 2020년에 전세계 총 152개 국가의 문화·창조산업(CCI) 분야 총부가가치(GVA) 생산액이 7,500억 달러 감소
- . 이는 1,000만개 이 분야 일자리 손실, 2019년 전세계 명목 GDP의 약 1%에 해당
- . 이는 Knock-on effects(간접영향)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 연극, 음악공연, 축제, 영화관, 박물관 등 장소 및 현장 기반 활동이 특히 큰 타격
- . 관련 자원이 집중된 대도시에서 더 큰 손실 발생



<출처 : 코로나 상황에서의 문화·창조산업(CCI) 실태분석보고서 (유네스코, 2021.6월)>

미국 문화예술분야 2019~2020년 총부가가치 생산 손실액 집계
(NEA, 2022.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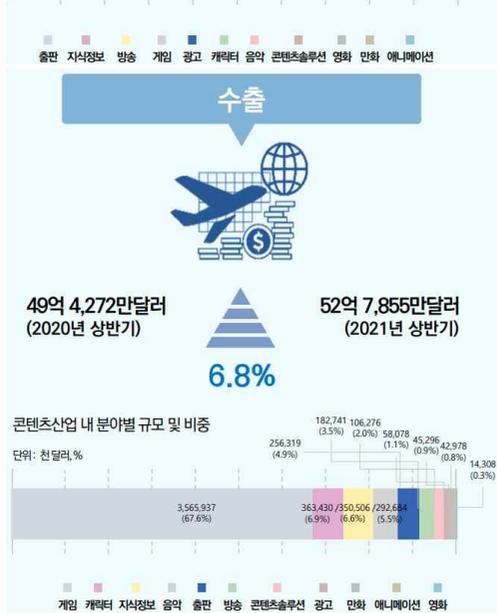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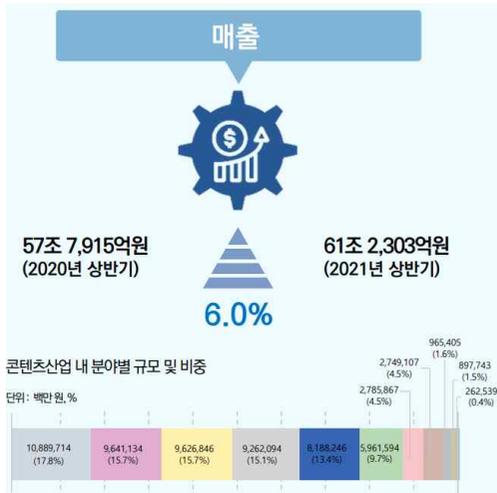
- . 2020년에 미국의 문화예술분야가 생산한 총 부가가치는 8,767억 달러로, 미국 GDP의 4.2% 차지
- . 2019~2020년 동안 문화예술분야는 전체 경제분야 감소(3.4%)에 비해 거의 2배 더 많은 타격 받아 총 생산 6.4% 감소(인플레이션 반영치)
- . 축제 포함 공연예술 부가가치 생산액은 2019~2020년 동안 73% 감소



<출처 : "New Data Show Economic Impact of COVID-19 on Arts & Culture Sector" (NEA 홈페이지, 2022.3.15.)>

『2021년 상반기
콘텐츠산업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12.21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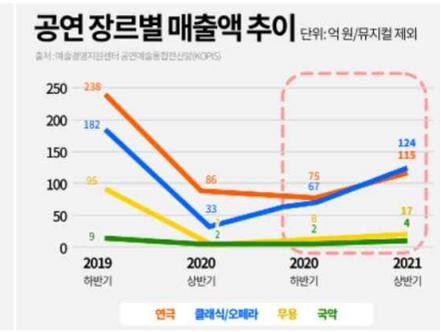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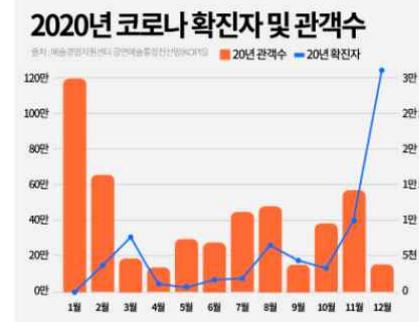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종사자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2021년 성장/회복세를 보여주는
문화산업분야 실적 통계들

KOPIS Talk '2021 공연시장 완벽정리'
공연계 대표 편집장들이 다 알려준다
(KOPIS 블로그, 2021.12.23.)²⁴

- 거리두기 좌석제로 유명공연은 더 빨리 매진
- 2021년 뮤지컬 매출 코로나 이전 규모 회복
- 대형 뮤지컬에 20대 관객 비중이 50% 이상
- 커가던 아동극 지역시장 축소



2020년의 2배 넘게 티켓 팔렸다...공연계는 코로나 회복 중 (중앙일보, 2022.02.15.)²⁵

- 인터파크 2021년 뮤지컬·연극·클래식·무용 등의 전체 티켓 판매 분석결과
- 2020년 1303억원에서 2021년 2837억원으로, 공연 편수는 2020년 4310편에서 2021년 8515편으로 대폭 증가 (2019년 1만 3305편, 5276억원)
- 2020년보다 10~20대 관객 소폭 감소, 40~60대 약간 늘어 (40대 관객이 18%에서 20.5%로 1.5% 증가)
- 인터파크 측은 "지난해 트로트 유행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

2022년 미술시장, 기회 폭증 속 범 내려온다 (서진수, 2022.2월)²⁷

- 2021년 한국 미술시장의 성적을 보여주는 단면들
- 유명작가, 인기작가의 화랑 전시 솔드아웃, 전체 경매회사 낙찰 총액 3,280억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망을 통한 미술품 거래 플랫폼 성장
- NFT로 대표되는 제5미술시장인 디지털 아트 마켓의 등장, 일부 NFT 가격 폭등
- 액자제작사와 표구사 업무량의 폭등에 의한 배송 지연

2020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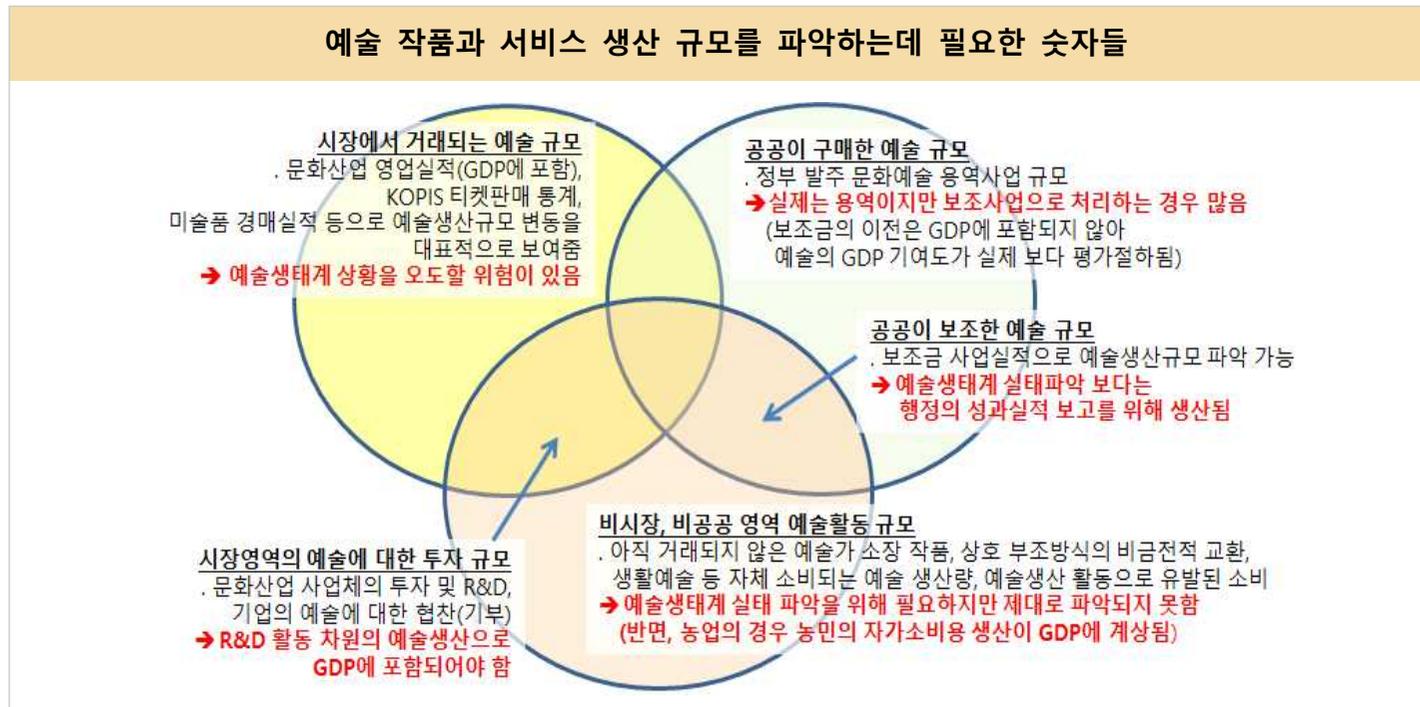
2021 미술시장조사(2020년도 기준)
주요 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2월)²⁶

- 국내미술시장 작품거래금액 3,849억원 (전년대비 7.2% 감소), 작품 수는 35,097점 (전년대비 7.5% 감소)
- 경매사 회원은 12만명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 작품 구입과 향유 관심은 확대

5. Post-코로나 시대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과 숫자가 만드는 오해**

엔데믹 시대의 예술정책을 준비하려면, 우선 팬데믹 기간 동안 예술생태계에 어떤 타격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된 예술상품과 서비스의 규모는 전년대비 변화상이 쉽게 파악되고 GDP에도 반영되므로 정책적 관심을 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체의 매출처럼 숫자로 파악되는 몇몇 예술 유통실적의 호황이 예술생태계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오도할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의 영역에도 들어오지 않는 예술활동 주체들이 코로나로 입은 피해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다 보니, 앞서 소개한 것처럼 “매우 비관적인 손실전망”과 “증가한 매출 실적” 사이의 괴리가 생깁니다.

코로나 긴급 지원은 최소한 부업으로라도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예술인 등록절차를 밟고”, 더 빨리 신청하러 온 “예술이 직업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며 허탈해하는 지역문화재단 담당자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의 정의가 불가능하듯,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니, 행정서류에 표기되는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가를 골라내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예술생태계 현황으로 참고할 통계자료가 없으니, 정부 재정담당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손실 보상” 프레임 보다는 차라리 “보편 복지”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이 코로나 긴급 지원의 명분이 됩니다.** 이렇게 예술생태계에 대한 세심한 관찰 없이 선심 쓰듯 퍼부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비시장거래 예술활동의 규모는 주로 지역문화재단 등이 담당하는 창작지원사업의 성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공공행정이 성과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방향뿐만 아니라 데이터 집계 방향도 달라집니다. 지원사업의 수혜단체 수가 실적이 되면 같은 예산으로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행정은 늘 전년대비 시계열 비교가 중요하므로, 갑자기 닥친 코로나 상황에 맞춘 새로운 실적지표를 채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은 GDP의 증가율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이나 예술 창작과 같이 엄연히 생산되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중에 가족이 함께 해먹은 식사준비 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고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 식사비는 포함됩니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생산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GDP는 틀렸다”²⁸⁾는 비판이 계속 제기됩니다. 문화산업체의 매출실적은 문화예술의 GDP 기여분으로 집계되고 관리될 수 있지만, 지원사업으로 창작되는 대부분의 예술생산은, 통계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정부 부문의 생산량으로 공무원의 월급은 GDP에 포함되는데 보조금의 이전으로 생산된 문화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국민의 실제 삶의 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추경예산 투입으로 증가한 공공부문의 사업실적 통계가 예술생태계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Post-코로나 시대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을 파악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숫자도 그 이면을 제대로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 빠르게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의 손실을 파악하고, 온라인 활동지원 사업 등 긴급한 처방을 내 놓았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대처하느라 준비 없이 시행한 그 사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에 도움이 될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쪼그라든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것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문 등에 의지해서 만든 손실 추정 통계의 정확도도 높여야 합니다. **예술생태계의 활력 요소가 되는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규모와 다양성> <창작에 필요한 조건과 자원 확보> <예술 작품과 서비스의 신규 생산 및 거래 규모> <예술 작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시민들의 접근성과 지지> 등의 현황을 숫자로 파악하고 이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스, 메르스, 돼지콜레라... 반복되는 전염병 창궐 때마다 문화예술계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지만 정확한 피해도 추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변화로 인해 이런 전염병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엔데믹 시대의 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숫자들을 제대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양혜원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²⁹⁾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피해 (설문 및 모수 추정 방식으로 산출)

- . 문화예술단체/기관/사업체
 -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모객의 어려움(63.4%), 미래상황에 대한 불확실성(61%), 등
- . 고용된 예술인
 - : 예술활동 중단으로 인한 막막함과 두려움(64.2%),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담(62.5%), 등
- . 프리랜서 예술인
 - : 일방적 계약 해지(46.2%), 계약기간 축소(33.1%),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과제

- . 코로나19 피해의 회복과 정상화
- .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 . 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대응
- .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 확대
- . 문화예술분야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창작안전망 강화



예술생태계 활력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 . 예술생태계의 활력 요소들을 설정
- . 각 요소들의 현황과 코로나로 인한 변화양상 파악하고 회복 방안 수립
- . 코로나로 변화한 현장에 맞는 문화행정 성과지표 채택

예술생태계 활력 회복을 위해 알아야 할 숫자들과 숫자가 주는 오해

예술생태계 활력 요소	세부 영역	숫자에 잡힐 수 있는 것 vs. <i>*아직 못 잡은 것</i>	숫자가 주는 오해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규모와 다양성	직업 예술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 본업: -정부의 지원/보조금 사업 참여 예술가 수 부업: <i>*예술을 業으로 하는 예술가 모수 규모</i>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숫자 이외에는 취미와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 숫자 구분이 불가능하여 정책 목표별 대상을 구분해내기 어려움
	취미 예술가 수	-생활예술 참여자 규모 (<i>*보조사업 참여자 외 전체 모수 규모 파악 필요</i>)	
	문화예술 연관산업 종사자 수	-문화예술 연관 산업 사업체 종사자 통계	
창작에 필요한 조건과 자원 확보	생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등 예술인 삶의 질 수준 (<i>*설문조사 대신 실 매출로 집계토록 코드 부여</i>)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 규모 (<i>*설문조사 대신 실 소득으로 집계토록 코드 부여</i>) 	-승자독식 현상이 반영된 평균값은 전체 예술가의 삶에 대한 착시 유발
	R&D 및 역량 개발 기회	<i>*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 규모</i> <i>*문화산업체의 R&D 투자 규모 (GDP에 계상 필요³⁰⁾)</i>	-창작지원 보다 일자리 및 복지사업 실적으로 오용
	창작에 필요한 자원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공간 등 창작인프라 수와 이용자 수 -창작지원/보조사업 신청/선정 규모 (<i>*사업 대상자 모수 파악 필요</i>) -문화산업 프로덕션에 대한 투자 규모 	
예술 작품과 서비스의 신규생산 및 거래 규모	시장에서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시장(공연, 미술, 영화 등) 실태조사 -KOPIS 공연티켓 판매량 통계 -민간 티켓에매 사이트 판매 실적 (<i>*신용카드 사용실적 집계로 전 문화예술 소비 규모 파악 필요</i>) -문화예술산업부문의 GDP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문화사업체의 실적 호황이 예술생태계의 위기상황을 오도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용역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이로 인해 자부담액 만큼 평가절하, GDP에 미포함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용 정량적 성과는 투입예산 만큼 증가하기 마련이며, 예술생태계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예술생산량 변화에 대한 착시 유발 -창작되었지만 거래되지 않는 예술, 예술가끼리 상호부조 방식으로 교환되는 예술의 생산량은 파악되지 못함 (농업인의 자기소비 농산품은 생산량에 포함되어 GDP에 계상됨)
	정부가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사업을 통한 공공문화시설 운영실적 (공연,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건수와 실행 횟수) <i>*문화예술 서비스(축제 등) 용역입찰 총 규모</i> 	
	정부가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급 규모 -보조사업을 통한 공공문화시설 운영실적 (공연,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건수와 실행 횟수) 	
	예술가가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 등록 통계 <i>*시장과 공공영역에서 거래되지 않은 창작 내역 (예술아카이브)</i> 	
	스스로 생산/소비	<i>*예술창작에 사용되는(거래되지 않은) 전문 예술서비스 규모</i> <i>*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생활예술창작 및 사용된 소비재 규모</i>	
	예술 작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과 서비스에 대한 호감도 (개별 가격, 판매량으로 일부 파악) -예술시장의 경쟁력 (연간 거래 총량으로 일부 파악) 	
시민들의 접근성과 지지	시민들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문화예술향유실태 (<i>*온라인 활동, 예술교육 통계 확대필요</i>) -공공문화시설 운영실적 (공연, 전시, 교육 등 참가자 수) 	-설문문항이 기술과 코로나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예술향유 방식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함
	시민의 예술에 대한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의 예술향유 만족도 <i>*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지지도 인식조사</i>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국가 간 거시지표 비교와 문화관련 통계 사이트들**

<공공행정 지표들>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문화관광을 포함한 모든 공공행정 통계)
e-나라 지표	https://www.index.go.kr/ (국민 삶의 질 핵심 국정지표 모니터링 통계 포털)
정책정보포털	https://policy.nl.go.kr/pages/information/information.jsp?bbsSe=9 (분야별 정책관련 통계 포털)

<문화관련 통계>

문화공공데이터광장	https://www.culture.go.kr/data/anal/policy.do (문화정책관련 데이터 및 분석시각화 서비스)
한국저작권 협회 저작권 통계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statistics/GDPByCountry/index.do#none (저작권 등록 현황 등)
세계도시문화포럼 WCCR	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data (세계도시들의 주요 문화지표 비교)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	https://www.culturalpolicies.net/statistics-comparisons/ (유럽 국가들의 문화정책 데이터 비교 서비스 제공)
유네스코 데이터 센터	https://www.unesco.org/en/ideas-data/data-center (문화, 창조산업, 교육 등 각국 비교 통계)

<거시 경제 통계>

KDI 경제정보센터 동향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List.do?topic=0 (월별 경제동향 자료 등)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거시경제지표 등)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수출입 동향 등 국제교역 관련 지표)
OECD 데이터센터	https://data.oecd.org/ (취업률 등 경제관련 OECD 국가 간 비교)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기후변화, 경제성장률 등 국가 간 비교)
유럽연합 통계센터	https://data.europa.eu/en (교육, 문화, 경제 등 전 분야 지표 비교)

<민간부문 통계 서비스>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인구, 인권, 교육 수준 등 주제별 국제 비교)
네이버 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 (네이버 검색 통계)
구글 트렌드	https://trends.google.com/trends/?geo=KR (구글 검색 통계)

<참고한 문헌과 기사들>

- 1) "코로나19 확산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외교부, 2022.4.18.
- 2) "코로나 19로 전 세계 경제 3조8000억 달러 손실", 무역뉴스, 2020.7.15.
- 3) 민영규, "ADB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손실 최대 1경818조원 전망"", 연합뉴스, 2020.05.15.
- 4) 주원,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경제주평, 20-22호, 현대경제연구소, 2020.8.25.
- 5)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경제에 나타난 11가지 변화", 무역뉴스, 2021.10.15
- 6) "한국, 코로나19 경제성적 승자...OECD 19개국 중 3위", 매일경제, 2022.03.04
- 7)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회의자료, 2021.12.30.
- 8) 김영은, "IMF 202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연합뉴스, 2021.1.25.
- 9) 기획재정부, "2022년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12.
- 10) 안태호, "'돈 버락' 맞은 자동차 업계...덜 팔았는데 더 벌었다", 한겨레신문, 2022.4.6.
- 11) "한국, 코로나19 경제성적 승자...OECD 19개국 중 3위", 매일경제, 2022.03.04
- 12)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경제에 나타난 11가지 변화", 무역뉴스, 2021.10.15
- 13)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회의자료, 2021.12.30.
- 14) 이창준, "코로나19 경제 피해, 산업·지역·인구별로 차별적...일반적 불황과는 달라", 경향신문, 2022.02.10
- 15) 이정은 외,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국회예산정책처, 2021.12.30.
- 16) 연합뉴스, "'코로나 시대 불평등의 팬데믹'...지구촌 소득·소비 양극화 심화", 매일경제, 2022.1.22.
- 17) 파블로 우초아, "코로나19는 빈국의 질병이 돼 버릴까?", BBC뉴스 코리아, 2022.3.30.,
- 18) 이민아, "코로나 2년차...국민 60% "혼자 여가 보낸다", 골프장 이용률만 상승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조선일보, 2022.03.24.
- 19) 이경은, "관광의 섬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 값을 돈 8조원, 가진 건 2조원", 조선일보, 2022.4.12.,
- 20) 양정우, 문체부 "코로나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분야 88조 피해 추산", 연합뉴스, 2021.10.1.
- 21) BOP Consult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the Face of COVID-19 ; an Economic Impact Outlook』, 유네스코, 2021.6월
- 22) "New Data Show Economic Impact of COVID-19 on Arts & Culture Sector", NEA 홈페이지(<https://www.arts.gov/about/news/>), 2022.3.15.
- 23) 반옥숙 외, 『2021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12.21
- 24) "KOPIS Talk '2021 공연시장 완벽정리' 공연계 대표 편집장들이 다 알려준다", KOPIS 블로그, 2021.12.23
- 25) 김호중, "2020년의 2배 넘게 티켓 팔렸다...공연계는 코로나 회복 중" 중앙일보, 2022.02.15.
- 26) 『2021미술시장조사 (2022년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 27) 서진수, "2022년 미술시장, 기회 폭증 속 범 내려온다", 서진수 미술시장, 서울아트가이드, 김달진미술연구소, 2022.2월
- 28) 『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원제 : Mismeasuring our lives), 아마르티아 센 등 저, 박형준 역, 동녘, 2011
- 29) 양혜원 외,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30) 강남규, "창조적 경제활동 적극 반영 ... 미, GDP 계산법 바꾼다", 중앙일보, 2013.04.23